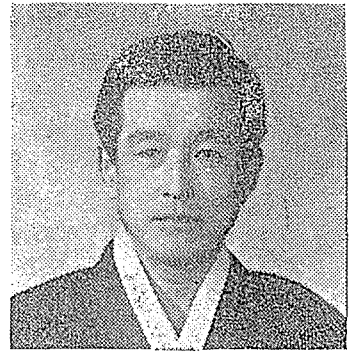


世界圖書館記行

아메리카 圖書館의 周邊 (2)

金 世 翊



이리노이大學圖書館과 圖書館學校

美國 第2의 都市 시카고는 뉴우요크와 더불어 美國의 「이미지」를 가장 強力하게 풍겨주는 곳이었다. 高層 建物이 즐비하게 서 있고 都心地 道路위로 高架電車가 달리는가 하면 또 그것은 地下鐵로 바뀌이기도 하여 巨大하고 스피이디한 美國의 상징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모두가 巨大하고 大規模인 것만은 아니다. 다음의 나의 窩着地인 이리노이大學이 있는 「삼케인」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삼케인」과 「올바나」라는 두개의 작은 都市(마을) 中間에 位置한 이리노이大學은 美國의 大學中에서도 이름난 名門이다. 이 大學의 物理 化學系統의 學科에는 여러명의 노벨受賞자가 있다. 美國에 와서 가장 부럽게 생각한 것 中의 하나가 前에도 言及한 바와같이 「뉴우요크」나 「와싱턴」에 있는 大學보다 이런 시골에 있는 大學에 더 좋은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리노이大學에 와 보고 참으로 조용하게 진지하게 學問을 할려면 차라리 이런 시골이어야 하겠다고 여러번 느껴 보았다. 2月 15일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이곳은 벌써 봄 기운이 감돈다. 나는 여기서 1週日 있을 豫定이다. 이리노이大學 도서관학교도 美國에서 一級에 屬하는 學校이며 博士學位課程을 가진 몇개 안되는 도서관학교 中의 하나이며 勿論 美國圖書館協會의 公認도서관학교이다. 이 學校는 1893년에 創設되었고 1926년에 ALA의 公認를 받고 있다.

美國圖書館協會는 36校(現在는 37校)의 公認도서관학교를 三階級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程度에 따라 1級 2級 3級(Type 1, Type 2, Type 3)으로 했으며 1級에 屬하는 도서관학교는 콜럼비아大學 도서관학교, 이리노이大學 도서관학교, 캘리포니아大學 도서관학교, 미쉬간大學 도서관학교, 시카고大學 도서관학교 등이 다.

이것들을 所謂 五大도서관학교(Big Five)라고 부르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것 같다. 가령 크리브랜드에 있는 웨스턴 리저브大學 도서관학교 教授나

學生들은 앞에서 말한 五個大學에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보기에도 五十步 百步 같았다. 어쨌든 내가 지금 찾아온 이리노이大學 도서관학교는 美國에서 名門의 하나라는 것은 分明하다.

이 도서관학교 학장은 공공도서관 分野의 權威者로 有名한 골드호오(Dr. Goldhore)博士이며 또 미국도서관협회 회장을 歷任하고 名實共히 美國圖書館界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다운즈(Dr. Downs)博士는 이리노이大學圖書館長이며 同時에 도서관학교도 管轄하고 있다. 이 점은 다른 大學과는 全然 다른 點인데 이리노이大學의 경우는 대학도서관과 도서관학과를 統率하는 것이 다운즈博士이고 골드호오博士는 도서관학과 學長이면서 다운즈博士의 밑에 있었다.

이것은 美國의 다른 도서관학교에서는 볼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梨花大學以外에서는 大學圖書館長과 圖書館學科長은 단 사람이지만 美國에서는 全然 아무 關係가 없다. 도서관학과 卒業生은 비록 같은 大學의 도서관에 就職하는 경우라도 다른 大學 도서관학교 卒業生과 똑 같은 資格으로 採用試驗(主로 面接이지만)에 應試해야 한다. 그 대학 도서관학과 卒業生이라고 아무런 特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리노이大學 圖書館에는 큰 印刷施設이 있다. 美國의 大學出版物(유니버시티·프레스)은 가장 良心의이고 權威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관에서 無條件 購入하는 것이 普通이다.

이리노이大學 出版部에서는 도서관학 관계의 出版物이 많이 나온다. 그 中에서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이 Library Trends이다. 이것은 시카고大學 도서관학교에서 나오는 有名한 The Library Quarterly와 더불어 圖書館學의 最高水準을 보여주며 雙璧을 이루고 있는 季刊學術雜誌이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美國에서도 도서관학이 成立되던 初期에는 도서관학이라는 것에 對한 社會의 關心은 꼭 冷情한 것이었다. 더구나 「라이브러리 사이언스」라는 그 科學이란 用語使用에 對하여 大端히 懷疑의이었다. 그래서

도서관학계에서는水準 높은學術雜誌를發刊하여 이것한論文을世上에 내 놓음으로서 도서관학의客觀的인認識을 높이고져 했다. 그方法中의 하나가 시카이고大學의 The Library Quarterly 와 이리노이大學의 Library Trends 의發刊이었다.事實上 이 두學術雜誌의水準은 다른 어느分野의雜誌에 비해 조금도遜色이 없는堂堂한 것이다. 이 두雜誌는 도서관학의學問의水準을 높이는 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헌이 컸다고 믿어진다.

Library Trends 는 1962년에創刊되었으며 이雜誌의編輯性格은 도서관학 및 도서관사업의批判, 分析評價, 豫報 등을目的으로 하고 있다.編輯은 이리노이大學圖書館學校教授團이 맡고 있고執筆은同校教授이거나教授團에特別히依賴한 사람만이 하며 이것은雜誌의內容價値의向上維持를爲한 것이다. 특히 이雜誌의 다음과 같은發行趣旨를 보면 그性格이 더욱明白해 질 것이다.

- (1) 過去 4年間の圖書館關係雜誌의內容檢討의結果와全美國의圖書館員의要望에應하고져 한다.
- (2) 圖書館學研究의成果를發表한다. 그러나 모든研究의發表機關은 아니다.
- (3) 圖書館學의分析和評價를提供한다.
- (4) 圖書館學에 있어서의最近의方法和最新의思想을論評한다.
- (5) 圖書館將來의發展에對해 언제나多大한關心을 가진다.

이趣旨에는 도서관학에對한自負와 아무에게나門戶를開放하지 않겠다는學問的인固執이 엿보인다.

시카이고大學 도서관학교에서刊行하는 The Library Quarterly 는 이보다 훨씬 빠른 1931年創刊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했다. 도서관과 도서관학에對한 것은 잠시 쉬고 이리노이大學에 한주일 있는 동안에 보고 느낀美國의大學生生活과 그외의 여러가지美國의社會相에對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시카이고飛行場에서「모하그」라는 작은雙發프로펠라機를 타고約 한時間 후에 이리노이大學이 있는「삼케인」飛行場에到着했다. 「삼케인」은 작은都市로서 다만 이리노이大學을 위해 있는都市다. 따라서 나와同乘한 손님은 거의 모두가 이리노이大學과關係있는 사람 뿐이었다.飛行機에서 내려서 出入口에 왔을 때 어떤紳士 한분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웰컴 프로페서 킴……」
하며 악수를請한다. 10年 知己처럼多情히 대해주는 이紳士는 알고 보니 이리노이大學圖書館學校學長인「골드호오」博士였다. 전에도 말한바 있거니와 그는美

國에서公共圖書館의權威者로 알려진 분이요 그方面의勞作도 여러 卷 가지고 있다.韓國에서 온 이 이름도 없는 나그네인 나를 이토록親切하게 맞이해주는 골드호오博士에對해서 나는眞心으로感謝했다.數萬里他郷에서는 조그만한人情도 가슴을 저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美國에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이런人情을數없이 받아 왔다.美國사람은 내가 알기로는世界 어느나라 사람들보다도人情이(비록 그것이個人的인 것일지라도) 두터워 보였다. 나는 지금도 그런 여러「꿈」을 생각하면서 즐거운回想에 잠겨곤 한다. 골드호오博士는車에 나를 태우고 스스로運轉해서大學構內에 있는「유니온」에 내려다 주었다. 「유니온」이라는 것은正確하게 말하면「스튜던트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큰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市內에 있는 어느 호텔보다豪華롭고施設도美國의一流호텔에 비해遜色이 없다.

主로學校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것으로서豫約이 되어 있지 않으면房언기도 어렵다. 다시 말해서美國에서는大學을 찾아오는 손님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施設이 좋고豪華롭기 때문에房값이 비싸다. 잠만 자는데 8불인가 한다. 8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2,400원 가량 되는데美國에서는 8불이라면 큰 돈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2,400원 보다는價値가 더 있다. 이것은 잘理解가 안가는點이다.美國의物價는 엄청나게 비싼데도 돈의價値가 그렇게 있는 것이 좀異常하였다.

美國은 메카니즘의世上이라서 그런지「힐튼 호텔」같은高級은 몇10불씩 하지만普通호텔은 어디로 가거의 똑 같은比率이다. 即房만 있는 것은 하루에 5불이고房에「샤워」가 붙어 있으면 7불이고「텔레비」까지 있으면 10불한다. 이것은 1965年 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것이다.美國 뿐만 아니라世界 어느나라에서도物價上昇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내가 머물게 된「스튜던트 유니온」에서 호텔로서의 시설은勿論이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오락시설도 완비되어 있었다. 「라비」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보고 나는 몹시 부럽게 여겼다. 그「포스터」는 졸업반 학생들의 졸업여행에 대한 광고였는데 그들은「에어 프랑즈」 전세비행기로 구라파로 떠나는 것이었다. 이 호화로운 여행「스케줄」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여행을 생각해 보았다.

기껏 해야雪嶽山이요海印寺요佛國寺 정도이니 그 엄청난差異는國力에서 오는 것일까? 놀람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美國사람들은學生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없이旅行을 즐긴다. 내가 만난 여러美國사람들中에서 자기의 가장 큰希望은 죽기前에 구라파旅行

을 可能하면 世界一周旅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事實 美國사람들은 一年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번 돈을 여행하는데 아낌없이 써 버린다.

순서가 바뀌는 듯하나 내가 美國을 떠나 구라파 여러 곳을 돌아 다닐 때 美國에서 온 觀光客을 수없이 보았다. 本국의 有名한 「와타로 부릿지」의 벤취에 조용히 앉아 있는 美國에서 온 老夫婦는 男子는 한 平生 택시운전수를 하였고 女子는 그녀의 平生을 病院清掃 婦노릇을 하였다고 한다. 그 夫婦는 이제 停年이 되어서 그들이 平生 번 돈으로 이렇게 구라파를 旅行하는 中이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一平生 구라파여행을 하기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한 셈이다. 이제 우리의 所願도 이루어졌으니 죽어도 恨이 없다」고 한다. 美國사람들은 돈을 벌면 社會事業에 寄附한다거나 旅行을 하는데 消費하는 것 같다. 個人의 致富意識과 好衣好食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大概是 社會事業을 한다거나 教育機關에 寄附한다거나 國家를 위해서 바친다거나 하는 그런 人生觀을 여러번 느껴본 일이 있다. 아마도 이런 것은 美國社會의 底邊에 뿌리깊게 깔려 있는 基督教精神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美國에서 배우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바로 이런 點이었다.

다시 이리노이大學 도서관학교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도서관학교 學長인 골드호오博士는 親切하기 이를때 없는 분이였다. 어느나라의 學者들처럼 매단치도 않는 學問을 가지고 교만을 부린다거나 性格의으로 편협하여 對人關係가 圓滿치 못한 것과 比較하면 골드호오博士는 學問과 人品을 兼備한 紳士였다. 尊敬할만한 분이였다. 제일 첫날에 나는 靑少年文學과 讀書指導講義室에 들어갔다. 나이가 많은 女子教授가 나를 學生들에게 (學生이라야 거의 全部가 女子이지만) 紹介하고 나에게 韓國의 도서관事情과 도서관학의 現況에 對하여 또 美國에 온 후 여러 곳을 돌아보고 느낀 點에 對하여 한 時間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이것은 困難한 문제다. 왜냐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英語로 講義할만큼 英語實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나보다 英語를 잘 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내 實力의 切半도 發揮 못하고 얼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難處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重大한 決心을 하고 敎壇에 섰다.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 學生들의 눈초리를 보니 그 決心이 또 動搖하기 始作한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몇차례 深呼吸을 하고 나서 말을 시작했다. 그럭저럭 한시간동안 이야기하고 난 다음 學生들의 質問이 始作되었다. 그들은 도서관과 도서관학에 對한 질문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質問도 한다. 유네스코에서 나에게 장학금을 줄 때 몇가지 「타부」를 알려 왔는데 그중의 하나가 어디

로 가나 絶對로 政治的인 發言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事情을 이야기하고 政治的인 質問에 對한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美國의 學生들이 韓國人인 나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은,

첫째 「韓日關係」였고 또 「現 朴大統領政府에 對한 것」이였고 또 하나는 「韓國사람들은 美國에 있어서의 人種紛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등이었다. 韓國에 있으면 다만 漠然하게만 알고 있지만 事實 美國에 있어서의 黑白問題는 深刻한 社會問題이다. 우리가 單一民族끼리 살고 있다는 點에 對하여 나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點心時間이 되었을 때 나는 골드호오博士의 招待를 받고 教授食堂에 갔다.

테이블에는 나까지 빛이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모두 도서관學校 教授들이다. 한주일 있는 동안 나는 每日 點心때에는 도서관學校 教授들과 같이 會食을 가졌다. 勿論 每日 세사람씩 招待로 나와 같이 會食을 하는데 맨 첫날에는 다운즈博士와 그외 두분의 教授와 같이 했다. 신기하게 느낀 것은 나의 點心값만 내주고 다른 세사람은 저마다 제몫의 돈을 내는 것이었다. 所謂 「덕튀 트리트」라는 것이다. 나도 내 몫을 내겠다고 여러번 말했는데 「당신은 우리의 손님이니까 그럴 必要가 全然 없다」고 한다. 모든 것이 機械的이다. 이런 思考方式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얼마동안 美國生活을 해 보니 오히려 그것이 合理的이고 自由스러운 것 같았다.

그러나 韓國같은 思考方式과 生活哲學을 부러워하는 美國사람도 있었다.

앞에서 말한 다운즈博士는 食卓에서 이런 말 저런말 하다가 「너의 나라에서도 내 冊이 번역 되었는데 아느냐?」 하고 묻는다. 다운즈博士에 對해서는 美國에 와서 비로소 그의 名聲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는 그에 對한 別다른 知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冊에 對해서도 나는 아는바가 없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世界를 改革한 冊들」이러는데 美國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有名하다고 한다. 韓國에 돌아와서 出版年鑑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것을 알았다. 金容權 譯이며 正音社에서 나왔고 384頁 되는 것이었다.

다운즈博士는 氣骨이 堂堂하고 默重한 분이여서 나는 다운즈博士는 美國大統領감이라고 말했더니 그도 別로 氣分이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美國에서 만난 많은 圖書館人들중에서 所謂 身言書判을 갖춘 사람은 男子로서는 이 「다운즈」博士였고 女子는 인디아나大學 도서관學校學長인(現在는 바우였지만) 미스 「랄스 폴도」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이리노이大學 圖書館에서는 엄청난 計劃을 하고 있

는데 그것은 「안더그레듀에이트 라이브러리」(學部圖書館)을 運動場 밑을 파고 이른바 地下圖書館을 만들 計劃을 세우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勿論 다운즈博士에게서 나온 것이다. 美國도 大學人口가 急激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校舍建築本이 大端하다. 臺地가 좁고 보니 이 地下圖書館을 計劃할 법도 하나 이 費用이 너무 많이 든다는 理由 때문에 美國의 圖書館界에서는 多少 批判的인 見解가 많았다. 모든 것이 地上에서 하늘로만 치솟아 오르는 美國에서 地下로 發展해 나가는 도서관에 對한 思想에 나는 깊은 興味와 關心을 가졌던 것이다.

플드호오學長宅에 저녁招待를 받고 갔다. 美國에서는 自己 집에 손님을 招待한다는 것은 큰 好意이며 大部分의 경우에는 市內 食堂으로 招待하는 것이 普通이다. 이것도 우리나라와는 大 別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받은 好意에 感激했기 때문이 아니라 美國의 家庭教育이 얼마나 嚴한가를 말하고 싶어서다.

플드호오博士집에는 醫師인 夫人과 아들 셋이 있었다. 高等學校로부터 國民學校에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父母에게 對하는 態度나 父母가 子息에게 하는 態度가 참으로 嚴格했다. 美國家庭에서는 食母라는 것은 存在하지 않으니가 食卓에 飲食을 차리는데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도와서 일한다. 父母가 수저(事實은 스푼이나 포오크이지만)를 들기 前에 드는法이 없고 食事が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게 되어 고맙다고 眞心으로 人事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었다. 美國은 自由의 나라라는 印象이 깊지만 이런 基本的인 모랄이 確立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중에 이와 같은 나의 感想을 플드호오博士에게 말했더니 「라이브러리안」은 모든 것이 秩序의이고 道德的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농담으로 대답했다.

이리노이大學에도 韓國學生이 4,50名은 있어 보인다. 그중의 한사람 N氏는 우리나라 某高官의 아들인데 도서관학을 공부하며 또 大學도서관에서 알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N氏는 몇 달前에 美國女性과 結婚하고 그들은 夫婦寄宿舍에서 살고 있었다. 夫婦寄宿舍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지만 美國에서는 어지간한 大學에는 다 있다.

普通寄宿舍外에 所謂 學生夫婦를 위한 寄宿舍다. 그들은 學校構內에서 夫婦生活를 하면서 또 工夫도 하고 있다. 이런 點에 對하여 美國에서는 아무런 회의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생각도 못할 일이다. 美國의 生活哲學과 우리의 그것과의 差異는 이런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는 N氏宅에 저녁초대를 받아 갔다. 夫人은 美國女性인데 近郊의 國民學校教師였다. 오래간 만에 쌀밥과 불고기 김치를 먹고 나는 생

氣를 되찾은 氣分이었다. 그 夫人은 자기 시아버지가 韓國의 高官이고 양반이라는 것을 몹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美國같은 自由와 平等의 나라에서 양반 意識같은 것은 없을 것 같지만 事實은 그렇지 않다. 美國사람들이 양반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別差異가 없다. 所謂 家門에 對한 執念이 대단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보고 美國은 아직도 封建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家門을 찾는 것은 어느나라에서도 있는 일이다. 家門을 찾는 方法이 다를 뿐이다.

家門을 찾는 것을 非難할 수 없다. 非難할 수 있는 것은 저저분하게 찾는 家門일 뿐이다. 저녁을 같이 먹다가 또 한가지 신기하게 느낀 것은 房에 공기가 탁하니 夫人이 N氏를 보고 저 窓門을 열고 오라고 指示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夫人이 앉아서 男便보고 指示命令하는 것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그런데 美國에서는 그것이 普通인 것 같고 男子도 別로 언짢게 여기는 기색도 없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은 일 같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것을 못하겠다.

다시 도서관 이야기로 돌아가야겠다. 美國의 여러 도서관에서 본 일이지만 도서관 운영관리가 機械化되고 있는 것을 부럽게 여기곤 했다. 이리노이大學 도서관에서도 많은 機械가 導入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에서 XEROX의 複寫施設 같은 것은 우리도 가지고 싶었다. 複寫가 급시 되어 나오는 기계로서는 現在까지는 XEROX가 가장 우수하다.

美國에 오기前에 韓國市場에서 複寫施設을 求해 본 일이있으나 모두 「렛트 씨스템」으로 된 것이어서 도서관用으로는 缺點이 너무 많아서 斷念한 일이 있다. 도서관에는 XEROX 같은 「드라이 씨스템」이 必要한데 XEROX는 販賣하는 것이 아니고 세를 놓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가질 수가 없다. 日本에는 「富士락스」라는 것이 있으나 이것도 「렌탈」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複寫施設뿐만 아니라 貸出의 機械의 處理라던가 書庫에 시설된 「리프트」나 「콤베이어」 또는 IBM 機械의 使用「셀린 레이부러」等 모두가 부러운 것 뿐이었다. 아직도 사람의 手足에만 依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하고 서글픈 생각을 하곤 했다.

大學에 教授도 많지만 學生도 3,4萬名이 되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貸出에 놓여있는 「북크 카아트」의 엄청난 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梨花大學의 경우는 하루에 館外貸出이 約 3百卷 內外인데 여기서는 2,3千卷이 넘어 보였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決코 그 生命을 利用에 있는 것이다. 모든 施設과 人的資源은 다 이 利用의 促進을 爲해서만 意味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간단하고 基本的인 것인데도 利用以外의 다른 要素가 도서관評價의 重要的한 條件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時代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리노이大學에서 한 주일의 「스케줄」을 끝내고 내일은 인디애나大學이 있는 「부르밍톤」으로 떠난다.